

## 세계 시민성 함양과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전망

김희준 (남서울대학교, 외래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다른 지구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 모델
- III. 경제적 세계화 모델
- IV.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제적 세계화 모델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06>

---

• ABSTRACT •

---

Formation of Global Citizenship and Economic Globalization  
from a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Adjunct Prof., Kim, Heejun(Namseou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an economic aspect of globalization to form the necessary character of global citizenship.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a Christian alternative to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drives globalization. This article uses a method by which Bob Goudzwaard's economic globalization model is added to Traugott Jähnichen's 'world civil society' model. The 'world civil society' model is a model for human freedom and dignity that embraces Konrad Raiser's 'another globalization.' This study adds an economic globalization model to Jähnichen's model and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God's kingdom and globalization can coexist within a Christian worldview. This study argues that Christians, as global citizens with messianic hope, can achieve alternative globalization to protect and preserve life and human rights through their awakening change and solidarity.

**Key words:** Globalization, Global Citizenship, Another Globalization, Reformed Worldview, Christian Social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세계화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나 생경한 용어가 아니다.<sup>1)</sup> 특히 세계 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5년 결성된 이후, 세계화와 국제 금융의 흐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sup>2)</sup> 사실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은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진행되어 가는 세계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세계시민 또는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 있어서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라고 가르치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편 24:1)라고 선포한다.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할 진정한 세계화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제시된 기독교 세계화 모델에 더하여,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경제적 세계화 모델을 더하는 것이

- 
- 1) 세계화는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세계화를 연구해왔고, 경제, 기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담론을 형성해왔다. 특히 경제와 기술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영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밥 가우즈워드의 경제적 세계화를 제외하고 다른 연구로는 다음을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Egbert Schuurman, *Perspectives on Technology and Culture* trans. John H. Kok (Sioux Center, Iowa: Dordt College Press, 1995); George Soros, *George Soros on Globalization* (New York: Public Affairs, 2002); Max L. Stockhouse, *God and Globalization* 4 vols. (New York: Continuum, 2007); Richard Gillett, *The New Globalization*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2005); Ulrich Duchrow, *Global Economy* trans. David Lewis (Geneva: WCC Publications, 1987).
  - 2)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주요 특징은, 미국의 달러화를 세계경제의 중심에 놓게 된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Agreements),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금융시장 등에 의해 재정립된 세계경제체제로 대표될 수 있지만 본 논문의 주제는 아니다.

기독교적 세계시민 양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기독교적 방식이 아닌 기독교적 대안 모델로 제안된 세계화 모델로 본 논문은 최경석의 ‘다른 지구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 모델’을 그 기초에 놓는다. 이것은 콘라드 라이저(Konrad Raiser)가 제시한 ‘공의회적 사회’ 모델로부터 출발하여 트라우고트 예니헨(Traugott Jähnichen)이 주장한 ‘세계시민사회’ 모델로 이어지는 방식으로서, 이 제안은 특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에 부합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이 모델이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의 신학적 기준에 부합함을 보이며 이 모델이 기독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한편 최경석은 이 모델이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경제학 종신교수이자 정치인이었던 밥 가우즈워드(Bob Goudzwaard)의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가우즈워드는 세계화의 근본 동기는 종교성을 띠며, 이러한 동기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과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세계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된 적절한 해결방안에는 가우즈워드가 말하는, 이런 세계화적인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적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그의 개혁신학에 기반한 경제적 세계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지구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 모델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경제적인 측면을 더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먼저 최경석이 제시한 다른 지구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 모델의 관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뒤이어 가우즈워드의 세계화 이해와 그에 기반하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 모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두 모델의 비교를 통한 공존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함양해야 할 덕목들을 도출한다.

## II. 다른 세계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 모델

최경석은 ‘첫번째 지구화’로 명명되는 산업화시기 이후,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두번째 지구화’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인 지구화 또는 세계화의 폭발적인 확장의 흐름에서 일련의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또한 함께 융성했음에 주목한다.<sup>3)</sup> 에큐메니칼 운동은 19세기부터 있었던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서구 열강의 세계로의 팽창, 그리고 그로인한 식민지 건설 등 일련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기독교적 책임의 필요성을 추구했다.”<sup>4)</sup> 예를 들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제1차 총회에서는 ‘책임사회(responsibility society)’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기독교의 사명인 복음전파에 인류를 위한 희망을 포함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sup>5)</sup>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에서 콘라드 라이저는 ‘공의회적사회’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세계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 주변부로 내몰려서 소외 계층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경제 및 금융의 영역과 국제기구 등에서 새롭게 해석한 “강제력”을 적용해 인권을 경시하는 세계화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sup>6)</sup> 이 모델의 기반은 초대교회 공동체로서, 당시 하나의 로마 제국이라는 비전에 대항하는 사회문화적 연대와 연결되는 개념이다.<sup>7)</sup>

최경석은 이러한 공의회적사회 모델을 발판삼아 다음 단계인 세계시민

3) 최경석, “다른 지구화를 위한 모델 찾기 - 기독교윤리적 전망,” 『장신논단』 45-2 (2013. 6), 13-39.

4) 위의 논문, 19.

5) 위의 논문, 19-20.

6) 위의 논문, 24.

7) 위의 논문, 25.

사회 모델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예니헨에 의해 주장된 이 모델은 기독교적인 구체성 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그 토대에 두고 있다. 세계시민사회 모델이 그리는 사회의 특징은, 첫째,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증진되는 사회이고, 둘째, “사회복지 국가의 모델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는 사회이다.<sup>8)</sup> 예니헨이 교회의 역할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그는 경제적 세계화의 확장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소외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sup>9)</sup> 왜냐하면 그것이 ‘가난한 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니헨의 세계시민사회 모델에서 교회에게 부여하는 역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니헨은 교회의 예배가 인간의 연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예배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유를 가능케하며, 그 고통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예니헨은 보았다. 이것을 토대로 교회가 다른 사회 기관들, 단체들, 공동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최경석의 해석을 빌리자면, “기독교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를 넘어선 만인을 위한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sup>10)</sup>

최경석은 이러한 세계시민사회모델이 실제로 교회에 적용이 가능한지 기독교윤리학적 검토를 더하여 신학적 방법론을 수립한다. 이 검토를 위한 증거로서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의 사회윤리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리히의 방법론은, 첫째, “인간부합적인 것”의 규정, 둘째, 그 규정된 것들의 실천 표준 또는 기준의 수립, 셋째, 이 수립된 행동 기준과 사회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새로운 “준칙들”의 제공이다.<sup>11)</sup> 먼저 인간부합적인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기반한

8) 위의 논문, 26.

9) 위의 논문, 28.

10) 위의 논문, 29.

인간됨을 의미한다. 현재 처한 구조적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실존적 종말론”이라 부를만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sup>12)</sup> 둘째, 실천 기준의 설정은 구체화된 사회정의의 의미이다. 특히, “세상과의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는 규준이 그 시작점”인데, 이것은 완전한 분리가 아닌 다른 존재하는 공동체 또는 제도들과의 공존을 함의한다.<sup>13)</sup>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정의의 설정과 사회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회윤리적 관찰과 평가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여 다시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변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경석은 이러한 리히의 방법론적 기초가 어떻게 ‘세계시민사회’ 모델과 부합되는지 설명한다. 리히가 주장한 믿음, 소망, 사랑에 기반한 인간은 실존으로서 예니헨의 세계시민사회 모델의 핵심인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만족시킨다. 또한 리히가 말한 “비판적 거리의 규준”은 다른 전통 또는 세계관들과 공존하는 예니헨의 세계시민사회 모델과 부합한다.<sup>14)</sup> 이로써 예니헨의 모델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특정한 기독교 신앙과도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 III. 하나님의 세계화를 위한 가우즈워드의 기독교적 경제적 세계화 모델

밥 가우즈워드는 세계화의 근본 토대는 영적이라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인간 사회의 뿌리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본성은 사회 구조를 설립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이데올

11) 위의 논문, 31-33.

12) 위의 논문, 31.

13) 위의 논문, 32.

14) 위의 논문, 34.

로기를 생산하고 형성한다. 가우즈워드는 사회의 어떤 분야라도 종교적인 정신이 사회제도를 다스린다고 말한다.<sup>15)</sup> 그는 또 인간은 그들의 영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말한다. 바로 하나님 또는 인간이다. 이런 종교적인 추구는 피조물로서는 만족될 수 없는 원죄에서 비롯되었다. 세계화 역시 이 종교적 본성과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가우즈워드는 케인즈의 다음 주장을 주목한다. “탐욕과 고리대금과 통제는 조금 더 오래 우리의 신들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경제적 필요의 터널에서 밝은 대낮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가우즈워드는 세계화를 지배하는 힘은 자본주의라고 밝힌다. 자본주의가 지구적인 여러 운동들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는 경제적 기술적 진보에 대한 신앙을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이념들의 합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에 속한 신앙은 물질과 인간 이성의 발전으로 유토피아에 이를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에 근거한다. 세계화는 결국 이러한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sup>17)</sup>

모든 이념들이 그러하듯, 자본주의 또한 하나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닫혀진 터널사회(a closed tunnel society)” 와 “비교또는 경쟁(comparativeness)”이다.<sup>18)</sup> 여기서 말하는 터널의 끝에는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어렴풋한 유토피아로 향할 것만 같은 불빛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유토피아가 무엇인지 구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

15) Bob Goudzwaard, *Globa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1), 15.

16) Bob Goudzwaard, *Capitalism and Progress: A Diagnosis of Western Society*, trans. Josina Van Nuis Zylstra (Grand Rapids, MI: Eerdmans, 1978), 138. Cf., John M. Keynes,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Essays in Persuas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32), 372.

17) Goudzwaard, *Globalization*, 35

18) Goudzwaard, *Capitalism*, 183-185.

다. 빛은 보이는 듯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 사실은 막다른 터널 끝으로 그저 전진할 뿐이라고 가우즈워드는 말한다.<sup>19)</sup> 즉, 닫혀진 터널사회구조란 미래라는 이름이 덧씌어진 거짓이다.

두번째 구조는 비교는 단순히 시장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 사회 모든 영역까지 적용되는 구조로서, 생존하기 위해선 그 누구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sup>20)</sup> 경제 체제는 비경제적인 영역들을 다스린다; 정부와 기관들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의 영역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침범한다.<sup>21)</sup> 비교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로 인한 성공은 다른 기회들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기회들을 잡기 위해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빈곤, 인권,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을 무시한다.<sup>22)</sup>

이러한 자본주의에 의해 잠식된 세계화가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이고 기술중심적인 세계화와는 다른 관점으로 세계와 세계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가우즈워드는 주장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전 지구적인 변화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우즈워드는 그 이유를 세 가지 든다. 첫째, 기독교 교회의 시작 자체가 전 지구적 공동체였기 때문이다.<sup>23)</sup> 이천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세계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사역에 대한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으로 시작되었다. 세계화는 성경에 위배되는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주적 복음이고 모두에게 명확하게 열려 있다. 가우즈워드가 주

19) Bob Goudzwaard, Mark Vander Venne, and David Van Heemst, *Hope in Troubled Times: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7), 189-191.

20) Goudzwaard, *Globalization*, 30-31.

21) 위의 책, 31.

22) 위의 책, 31-32.

23) 위의 책, 20.

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주(the Lord)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주가 맞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며 돌보신다는 신뢰를 가져온다.<sup>24)</sup>

둘째, 첫째 이유와 연결되는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sup>25)</sup> 물론 경제, 기술, 과학 등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중요 영역의 영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sup>26)</sup>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각 요소들마다 인간의 내적인 소명과 존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다. 가우즈워드는 자유 시장 체제에 관한 칼빈의 해석을 따른다. 칼빈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어떠한 경제 또는 기술 발전이든 정부나 종교 기관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sup>27)</sup> 시장은 각 개인의 “진정한 연대”를 통해 타인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sup>28)</sup> 이것이 바로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이해하는 자유 시장 제도이며, 여기에는 금융 시장도 포함된다.<sup>29)</sup> 비록 현재의 세계 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영역을 관할하시고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한다.

셋째, 세계화는 하나의 측면이나 경제 이론, 또는 기술로 측정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 가우즈워드의 이유다. 기술이나 금융 산업의

24) 위의 책, 29.

25) 위의 책, 151.

26) 위의 책, 20.

27) Goudzwaard, *Capitalism*, 64.

28) 위의 책, 61-65.

29) Goudzwaard, *Globalization*, 21.

용성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성취로서 봐야만 한다.<sup>30)</sup> 오히려, 인간의 역사를 통해 그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확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가우즈워드는 말한다.<sup>31)</sup>

기독교적 세계화의 특징은, 가우즈워드에 따르면, 생명의 돌봄과 결실을 의미한다. 돌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관리를 말하고, 결실은 선한 청지기가 일궈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통해 맺게되는 생명의 결실을 의미한다.<sup>32)</sup> 원칙은 간단하지만 결실을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은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덕목으로써, 여기엔 세계화에 대한 가치 판단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화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다.<sup>33)</sup>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화의 첫 시작은 성경이다. 특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은 세계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가우즈워드는 말한다.<sup>34)</sup> 세계화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다. 앞서 언급한 단 한 터널 사회와는 달리, 진정한 인간 사회의 증진은 열린사회다.<sup>35)</sup> 열린 사회는 모든 자본, 정보, 그리고 기술이 특정 집단이나 국가에 의해 제한

30) 위의 책.

31) 위의 책, 16-17.

32) Goudzwaard, *Capitalism*, 64-5; idem., “A Paper God,” *Sojourners* June(2009): 25.

33) Goudzwaard, *Globalization*, 17.

34) 위의 책, 20.

35) Goudzwaard, *Hope*, 23. Cf., George Soros, *The Crisis of Global Capitalism: Open Society Endangered* (New York: Public Affairs, 1998).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열려 있는 것을 말한다.<sup>36)</sup>

이러한 열린사회의 특징은 “협동”이다.<sup>37)</sup> 협동의 제도는 더 많은 생산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봄을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알맞은 경제 원칙과 활동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기반하여 경제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 내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피조세계를 돌봄으로써 경제적으로 생산물들을 생산하고 나누는 것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sup>38)</sup> 그것은 경제를 뜻하는 영어인 ‘이코노미(economy)’가 유래한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다. 오이코노미아에서 접두어 ‘오이코’의 원형인 ‘오이코스(oikos-)’는 집(house)을, 접미어 ‘노미아(nomia)’는 돌봄을 의미한다.<sup>39)</sup> 즉, 오이코노미아 또는 이코노미(경제)는 집을 돌보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한 집을 생각할 때 당연히 “비윤리적이지만, [동시에] 비경제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sup>40)</sup>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가우즈워드식 기독교적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세계 시민성 함양을 도울 수 있을까?

가우즈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질적인 세계화는 멈춤없는 경쟁을 생산해낸다; 이것은 이 경쟁적인 사회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41)</sup>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화는 다르다. 사람들이 하나

36) 위의 책, 23-25.

37) Goudzwaard, *Globalization*, 29.

38) 위의 책, 21-22.

39) Bob Goudzwaard and Harry De Lange, *Beyond the Poverty and Affluence*, trans. Mark Vander Venne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54.

40) Goudzwaard, *Globalization*, 21.

41) 위의 책, 32-35.

님을 향한 올바른 영적 동기를 갖게 될 때, 구조적인 문제들은 옳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세계화에 대한 바른 의미를 통해 메시아적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sup>42)</sup>

가우즈워드스는 이러한 바른 절차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변화를 위한 시간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각각의 영역주권을 보전하고 열린 공동체로서 협력을 통해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려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연결은 목적없는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성취를 놓고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메시아적 희망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sup>44)</sup>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가우즈워드스는 주장한다.<sup>45)</sup> 메시아적 승리와 성령의 일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새벽별”의 메시아적 희망을 가진다.<sup>46)</sup> 가우즈워드스는 예수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신 “나 예수는 ...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이름이 “새벽별”의 뜻을 환기시킨다. 이를 통해 에스더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새벽별’의 한 모델이 되기도 함을 주장한다.<sup>47)</sup>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적 희망이란 수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새벽별로서 가장 어두운 순간 동안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변화를 장담

42) 위의 책, 35-36.

43) 위의 책, 36.

44) Goudzwaard, *Hope*, 174.

45) Bob Goudzwaard,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IL: IVP, 1984), 97.

46) 위의 책, 7.

47) Goudzwaard, *Idols*, 98-99; idem., *Hope*, 177.

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감추어진 성령님은 일하신다.<sup>48)</sup> “누가 아느냐?”(에스더 4:14)고 반문한 모르드개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고, 가우즈워드는 이것이 메시아적 희망이라고 말한다.<sup>49)</sup>

가우즈워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일어나는 네 가지 요소의 변화를 제시한다. 첫 번째 변화는 잃어버린 만족에 대한 회복이다. 이것은 최면에서 깨어나는 것과 비슷하며, 작은 소유에 만족하는 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아는 것이라고 밝힌다.<sup>50)</sup>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 변화를 통해서, 소비와 소득을 줄이고 절제된 생활로의 변화다. 성숙한 삶은 고소득을 좇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다.<sup>51)</sup>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을 함의하는 것으로서 현실에서는 무언가 존재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sup>52)</sup>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설명하자면, 소비를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없는(nothing) 상태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만큼의 자선과 기부로 나누는 것이다.<sup>53)</sup> 이것이야말로 기계가 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이다. 세 번째 변화는, 기계에서 생명로의 변화다. 일을 하고 연계되는 재정적 급여에 의해 별다른 고민없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우즈워드에 따르면, 소득과 소비에 있어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려대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이 되어야

48) Goudzwaard, *Idols*, 99.

49) 위의 책, 100.

50) Goudzwaard, *Globalization*, 13-14. Cf., James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405-440.

51) 위의 책, 38.

52) 위의 책.

53) 위의 책, 38-39.

한다고 주장한다.<sup>54)</sup> 취업, 빈곤, 교육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 우선순위에 생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이, 물질주의가 그리고 있는 추상적인 미래의 낙원과 그것을 향한 진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가우즈워드지는 말한다.<sup>55)</sup>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일어나게 될 네 번째 변화는 정부와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의 변화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의 개혁, 정보기술의 세계화, 그리고 환경의 보호이다.<sup>56)</sup>

가우즈워드지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었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화라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위해 신앙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화라는 흐름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문제들처럼 근본적으로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음을 단언한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말이다.<sup>57)</sup>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세계화라는 흐름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신중한 관찰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화를 이룰 것인지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도구들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지키며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세계화에 대한 바른 이해로 새벽별의 소망을 갖는 길이다.

#### IV.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독교적 경제적 세계화 모델

예니헨의 세계시민사회 모델과 가우즈워드지가 제시한 기독교적 경제적

54) Goudzwaard, *Capitalism*, 244.

55) 위의 책, 245.

56) 위의 책, 117; idem., *Hope*, 195.

57) Goudzwaard, *Idols*, 76; idem., *Hope*, 151, 176-177.

세계화 모델은 공존할 수 있을까? 예니헨의 세계시민사회 모델이 제시하는 두 가지 사회의 특징은, 첫째,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증진되는 사회, 그리고 둘째, 교회와 사회기관이 연대하는 사회 통합 모델이다. 이러한 예니헨의 모델은 생명의 돌봄과 결실을 목표로 하는 가우즈워드의 세계화 모델과 공존이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열린사회로의 협력과 협동은 인간의 자유를 지지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존엄을 보호한다. 가우즈워드가 사용한, 집을 돌본다는 의미의 ‘오이코노미야’의 어미인 ‘오이코스’의 어근은, ‘에큐메니칼’의 그리스어인 ‘오이쿠메네’의 어미와 같은 ‘오이코스’라는 어근을 갖는다. 즉, 에큐메니칼 정신을 담은 라이저와 예니헨의 화해와 일치를 향한 세계화의 모델은, 가우즈워드가 꿈꾸는 기독교적 경제적 세계화 모델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가우즈워드의 모델은 예니헨의 모델의 신학적 준거가 되는 리히의 세 가지 준칙, 즉, 인간부합적인 것, 그에 따른 행동강령의 기준 수립, 그리고 사회제도와의 유동적인 상호작용에 반대되지 않는다. 첫째 준칙인 인간부합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에 기반한 인간됨이 핵심이다. 가우즈워드의 모델 또한 메시아적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사회정의를 의미하는 리히의 인간부합적인 규정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기준의 수립은, 세상과의 비판적 거리 두기의 기준인 다른 공동체 또는 제도들과의 공존인데, 가우즈워드의 모델이 말하는 열린사회와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셋째, 사회제도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유동적인 적용은, 가우즈워드가 제시한 네 가지 변화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그것은 개인의 만족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절제된 생산과 소비의 삶의 방식은, 소비를 줄이고 없는 이에게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인의 인식과 삶의 변화는

기계적 생산에서 생명의 보존과 보호로의 변화이며, 경쟁과 생존이 아니라 절제, 협동, 그리고 공유의 덕목들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능동적인 행동이 취해지면서, 비록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는 국제기구의 변화와 전지구적 환경 및 생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가우즈워드의 비전이다.<sup>58)</sup>

이러한 가우즈워드의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으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부채의 탕감과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이라는 요구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보기술의 투명하고 제약 없는 지원을 포함한다.<sup>59)</sup>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개혁이다.<sup>60)</sup>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서방국가에게 진 채무를 갚기 위해 자국의 사회 기반시설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을 돕고, 이들 저개발국가들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국제통화기금의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이 가우즈워드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다시 여러 국가의 정부가 의견을 모아야 하고, 특히 선진국의 동의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다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가우즈워드의 세계화 모델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덕목으로는 절제, 인내, 그리고 국제적 연대의식이다. 자신의 경제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절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와 인내는 공적인 정치적

58) Goudzwaard, *Hope*, 195.

59) Goudzwaard, *Globalization*, 43; idem., *Hope*, 163-165.

60) Goudzwaard, "A Paper God," 26.

선택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세계와 지역도 연결될 수 있고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sup>61)</sup> 특히 개별 지역교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지구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연대와 공헌에 열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이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차별없는 환대로서 낯선이를 맞아 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원조와 보호일 것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스터의 새벽별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닮아야 할 모습이다.

## V. 나가는 말

세계화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다. 삶의 환경으로 자리잡은 세계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간다. 본 논문에서는 최경석이 제안한 예니헨의 세계시민사회 모델을 살펴보고, 여기에 경제적인 측면을 더하고자 네덜란드 경제학자인 밥 가우즈워드의 기독교적 경제적 세계관과 그에 따른 세계화 모델을 살펴보았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제, 특히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질문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경제적 세계화를 이끄는 미국을 고려할 때 미국식 세계화 모델이 연구되지 못했다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후속 연구의

61)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전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친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일명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상환불능으로 초래된 개인 및 금융회사들, 특히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이었던 리만 브라더스의 연쇄 파산사건이다. 주택가격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연쇄적인 경제위기 및 침체를 가져왔다.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위에서 있는 세계시민사회 모델과 공존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세계화 모델을 통하여 세계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경제적인 측면을 짚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진정한 세계의 시민이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체득해야만 하는 덕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벽별의 덕임을 결론짓는다. 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기다리겠다는 종말론적인 덕, 바로 인내와 절제, 그리고 국제적 연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최경석. “다른 지구화를 위한 모델 찾기 - 기독교윤리적 전망.” 『장신논단』 45-2 (2013), 13-39.
- Bratt, James,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 Duchrow, Ulrich. *Global Economy*. Translated by David Lewis. Geneva: WCC Publications, 1987.
- Gillet, Richard. *The New Globalization*.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2005.
- Goudzwaard, Bob. *Capitalism and Progress: A Diagnosis of Western Society*. Translated by Josina Van Nuis Zylstra. Grand Rapids, MI: Eerdmans, 1978.
- \_\_\_\_\_.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IL: IVP, 1984.
- \_\_\_\_\_. *Globalization Black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2010.
- Goudzwaard, Bob and Harry De Lange. *Beyond Poverty and Affluence*. Translated by Mark Vander Venne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 Goudzwaard, Bob, Mark Vander Venne, and David Van Heemst. *Hope in Troubled Times: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7.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1: *Human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 Keynes, John Maynard. *Essays in Persuas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32.
- Schuurman, Egbert. *Perspectives on Technology and Culture*. Translated by John H. Kok. Sioux Center, Iowa: Dordt College Press, 1995.
- Soros, George. *George Soros on Globalization*. New York: Public Affairs, 2002.
- Stockhouse, Max L. *God and Globalization* 4 Volumes. New York: Continuum, 2007.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05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2일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은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세계시민성 중 경제적 세계화와 관련한 기독교윤리적 고찰을 가능한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세계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최경석이 제시한 예니헨의 세계시민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대안적 세계화 모델의 토대를 갖추고, 여기에 밥 가우즈워드의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경제적 세계화 모델을 덧붙이는 방법을 본 논문은 사용하였다. 세계시민사회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구화라는 콘라드 라이저의 공의회적사회 모델을 아우르는 모델로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존엄을 위한 모델이다. 여기에 경제적 세계화 모델을 더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계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메시아적 희망을 가진 개인들의 변화와 연대를 통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세계화, 세계시민, 다른 지구화, 개혁주의 세계관, 기독교사회윤리

---